第241回國會
(臨時會)

2010年平昌冬季올림픽 誘致特別委員會會議錄

第 5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3年7月15日(火)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101號)

議事日程

1.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활동관련金雲龍IOC위원에관한건(계속)

審査된案件

1.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활동관련金雲龍IOC위원에관한건(계속) ····· 1
o 국회의원(金雲龍) 공직사퇴권고결의안 ····· 3

(08시42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국회(임시회) 제5차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인데 오전 8시 일찍 위원회를 개의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활동관련金雲龍IOC위원에관한건(계속)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활동관련金雲龍IOC위원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9일과 14일 회의를 통해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와 관련해서 金雲龍 IOC위원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 4개 관련기관 및 참고인 5인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통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의 처리방침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차례의 회의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조사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金雲龍 위원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밴쿠버가 결정된 직후 개최된 IOC 주최의 리셉션에 참석한 崔萬立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외국의 모 IOC 위원으로부터 金雲龍 위원이 평창에 투표하지 말라, “Don't vote for PyeongChang.”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金雲龍 위원은 이러한 발언을 절대 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발언을 한 IOC위원의 명단을 본인에게 알려주면 해당 IOC위원을 IOC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른바 평창재수론과 관련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孔魯明 유치위원장, 金振兢 집행위원장은 평창은 이번에는 안 되고 2014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金雲龍 위원의 발언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으며, 최만립 유치위원회 부위원장도 모 IOC위원으로부터 이를 들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에 의하면 金雲龍 위원이 평창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방해되는 언행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金雲龍 위원은 상식적으로 그런 발언을 할 리가 없다고 부인하며, 그 이야기를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가져오면 IOC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金雲龍 위원의 부위원장 출마와 관련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李滄東 문화관광부장관, 孔魯明 유치위원장, 金振兢 집행위원장, 최만립 유치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金雲龍 위원이 IOC 부위원장에 출마하는 것이 경쟁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IOC가 동일 국가에 좋은 것 두 개를

동시에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문화관광부와 유치위원회 등에서 불출마를 선언할 것을 부탁했으나 金雲龍 위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金雲龍 위원은 이에 대해서 부위원장 불출마 선언이 평창 유치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 평창의 2014년 재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Sport Intern지와 관련해서는, 평창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다수 보도한 동 신문에 대해서 孔魯明 유치위원장은 金振兢 지사가 있는 자리에서 金雲龍 위원으로부터 동 신문은 위 위원의 아들이 대주주로 되어 있으며 구매해 달라고 요청해서 유치위원회가 2만 불을 지불하고 100부를 구매하게 된 것이며 평창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내도록 함과 동시에 이 신문이 金雲龍 위원의 영향하에 있다고 보아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구독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金雲龍 위원 또는 그의 아들 김정훈 씨와 Sport Intern과의 관련사실 확인을 위해서 외교통상부에 의뢰하여 통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적어도 법적으로는 金 위원의 아들 김정훈 씨와 무관하지만 독일어권 유수 일간지 Neue Zuericher Zeitung과 Die Welt지가 金雲龍 위원의 Sport Intern지에 대한 재정지원 소문에 대해 보도한 사실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끝으로 평창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로 Sport Intern 기사를 짜깁기해서 6월 18일 발행되기 하루 전인 6월 17일에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의 습득 경위에 대해서 崔勝浩 유치위 사무총장은 동 문건은 국제 체육계의 주요인사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며 이 문건의 전송일자 표기방식으로 보아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어제 늦게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신 자리에서 이 설명이 나왔기에 위원님들 앞에 참고서류 3부를 제시했습니다.

거기 A문건,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내온 문건을 보면 원래 18일자 발간된 것에 하루 앞서서 그 중에서 평창에게 불리한 내용만 취합한 Sport Intern 기사를 해외의 체육 관계자들한테 보내왔다, 그런데 거기 제일 꼭대기 왼쪽에 표시된 것을 보면 발신자 표시는 없지만 날짜 표시가 연·월·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시되어 있는 C문건에 보면 외국에서 온 여러 가지 팩스 문건에 다 일·월·년 또는 월·일·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 이렇게 연·월·일 표시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한편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 보내온 대한민국국회 마크가 찍혀져 있는 이 팩스 내용이 연·월·일로 찍혀진 유일한 것이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金雲龍 위원은 유치활동 과정에서 IOC총회 대표단에게 "프라하에 뭣 하러 왔느냐, 평창은 20표 정도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는 등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金雲龍 위원은 떠들썩하게 수백명의 유치단이 IOC총회에 참석하여 명함을 교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표하는 IOC 위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며 누구보다 IOC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로서 당시 평창은 세 후보지 중 3위로 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본인은 이러한 정보에 근거해 발언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참석하시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자들의 답변을 어느 정도 숙지하셨을 것으로 믿고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방식이든지간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金龍學 委員 金龍學 위원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동계특위를 통해서 존경하는 金雲龍 위원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과 관련해서 방해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는 많이 논의되었고 각종 증거들이 다 제출되었습니다. 막연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 그 말 자체가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 과거에 스스로 인터뷰한 내용들, 개개

위원들하고 얘기한 내용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들만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더라도 金雲龍 IOC 위원님의 말과 행동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상당한 방해행위로 작용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제가 같은 동료위원의 입장으로 동료위원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金雲龍 IOC 위원님은 저도 물론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당히 존경하는 우리 체육계의 대부로서 국제 스포츠 사회에서의 위상이 높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분의 책임이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정치적 책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논의했고 또 저도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밝혀진 이 상황하에서는 적어도 우리 동료위원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저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은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金雲龍 위원님에 대한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공직사퇴 권고를 결의하는 안건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지금 金龍學 위원님의 본인에게 맡기는 공직사퇴권고결의안은 국내만입니까, 해외도 포함되는 겁니까?

○金龍學 委員 국내·해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어차피 본인에게 맡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의 권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해외 문제에 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당 간사들의 그동안의 협의였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해외 문제는 빼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金龍學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국내 공직에 관한 사퇴권고 결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가 있습니까?

○金映宣 委員 동의합니다.

---

o 국회의원(金雲龍)공직사퇴권고결의안

(08시53분)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위 제안이 동의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안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들의 협의에 의해서, 본인이 여기 와 있고 본인의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5분 내로 본인의 신상발언만 하시고 퇴장한 후에 양당이 5분씩만 찬반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映宣 委員 위원장님! 어제 제가 끝까지 남아 있었지만 어제 金雲龍 위원에게 충분히 발언기회를 주었고 또 위원장님께서 오늘 양측의 입장을 다 잘 정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간략한 다른 분의 찬반의견 후에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8시에 약속했는데 계속 기다려 가지고 지금 회의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회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시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실하게 참석한 사람일수록 표결에 참석 못하고 나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간략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알겠습니다.

그런데 金映宣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은 엄격하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응답인 것이고……

○金映宣 委員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지금 8시에 회의하기로 하고 계속 안 들어오시다가 지금 시작하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8시에 간단하게 표결하겠다고 고지하고 아침 회의에 모인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學元 지금 양당에 5분씩 발언 끝나고……

○全甲吉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말씀하세요.

○金映宣 委員 다시 5분, 5분 해 가지고 지금 20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 본인이 5분 하셔야 될 것이고 찬성·반대 5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얘기하실 분……

○全甲吉 委員 찬성·반대가 왜 5분입니까? 충분히 반대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金映宣 委員 그런데 어제 왜 다 가시고 발언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또 그러시느냐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시자 이 말이에요.

○全甲吉 委員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해요. 다음에 합시다.

의원 한 분의 신상문제를 그렇게 5분씩 발언하고 대충 넘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金映宣 委員** 그러나 민주당 위원님께서 늦게 오셔서 자리에 임석하지 않으시고 회의를 공전하시고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全甲吉 委員** 그래요. 다음에 합시다.

○**委員長 金學元** 우리 위원님들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제는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한테 반대신문권을 준 것입니다. 오늘은 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 본인한테 신상발언을 5분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5분을 넘기지 않도록 제가 5분 후에는 바로 시간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趙在煥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全甲吉 委員** 세상에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委員長 金學元** 지금 시간이 없어서……

○**全甲吉 委員**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요.

○**委員長 金學元** 양당 간사들끼리 협의를 했어요.

○**全甲吉 委員** 모든 회의를 위원장님 주관으로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합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두 분 중 한 분만 하세요.

○**全甲吉 委員** 의사진행발언을 충분히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왜 한 분만 해요.

○**委員長 金學元**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하세요.

○**金敬天 委員** 신상에 관한 문제가 달려 있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委員長 金學元** 의사진행발언을 한 분만 하세요. 全甲吉 위원님 한 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在煥 委員**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두 분이 상의해서 한 분만 하세요.

○**全甲吉 委員** 의사진행발언인데 왜 상의해서 한 분만 해요? 의사에 관련된 발언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지요.

○**委員長 金學元**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결정을 빨리 하기로 양당 간사들 간에 합의도 봤고……

○**全甲吉 委員** 이것이 무슨 급한 일이라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까?

○**委員長 金學元** 둘 중 한 분만 하세요.

○**全甲吉 委員** 의원 신상문제를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침 새벽부터 오라고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요?

○**委員長 金學元** 全甲吉 위원 먼저 하세요.

○**全甲吉 委員** 한나라당 위원들 들어오면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의사와 관련해서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소위 한 분의 국회의원을 동료위원들이 징계를 함에 있어서 그 분에 대한 충분한 소견을 들을 수 있는,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어야 되고 또 그 외 동료위원들이 반대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5분씩 규정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은……

○**委員長 金學元** 5분씩 주자고 한 것은 양당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관례적으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당간사 간에 사전에 합의를 해서 양당이 5분 범위 내에서 위원이 혼자 사용을 하든지 두 사람이 사용하든지 5분간으로 찬반토론하자, 그 이유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모든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甲吉 委員** 간사 간에 합의하셨습니까?

○**咸承熙 委員**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고 의사진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全甲吉 委員** 찬반토론을 5분으로 합의했습니까? 그 5분 합의를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지요.

○**咸承熙 委員** 신상발언이라든가 의사진행발언은 자유롭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全甲吉 委員** 그러면 알았습니다.

○**咸承熙 委員** 찬성반대토론은 우리가 충분히 했으니까 5분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고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과정의 문제라든가 적법성의 문제는……

○委員長 金學元 가만히 있어요.

○全甲吉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5분도 짧다고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趙在煥 委員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더라도 이쪽에 한나라당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趙在煥 委員 앞으로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정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관계자 여러분한테 전부 진술을 듣고 우리끼리 토론을 벌이고 또 궁금한 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관계자 없이 우리끼리만 전체 종합해서 토론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결론을 내자 이것이 정상적으로 회의를 끌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金龍學 위원이 느닷없이 무슨 안건을 내놓고 검사 구형하듯이 해 놓고 나가버리면 우리는 아무 선입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金雲龍 위원을 도와주려는 생각도 없고 국익차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했어요.

그리고 간사들도 당 대 당으로 맞서는 모양은 대단히 옳지 않다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진실을 규명하는 데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만 논의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들어야 됩니다. 양 이틀 동안 토론결과를 놓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의견을 좁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金龍學 위원이 무조건 나와 가지고 무슨 공직사퇴 권고결의안을 내고 나가버리면 자기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다 이루고 내일 신문에는 바로 권고결의안을 냈다고, 결의했다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목적달성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가버린다 말입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의 회의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 문제는 당초에는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어제 최종결정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것인데 질의응답이 끝난 뒤에 위원님들이 몇 분 안계셨을 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 기간 동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양당 간사 간에 얘기가 되어서 그러면 저녁 하루를 지낸 다음에 오늘 아침 8시에 개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자, 대신 그동안 여러 사람의 질의응답 또 金雲龍 위원의 그것에 대한 해명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대개 깊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오랜 동안의 대체토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모아져서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대체토론을 5분만 주자고 한 것이고 金雲龍 위원도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원래 법적으로 이해당사자의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때는 본인이 자리에 앉는 것이 보통 관례적으로 되어 있고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해관계당사자는 여기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합의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雲龍 위원이 참석을 하셔서 제가 또 양당 간사의 양해를 구해서 金雲龍 위원 본인에 대해서 신상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신상발언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사진행발언이 나오고 본 위원장에 대한 불만의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在煥 委員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데 고생을 하시고,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 무슨 권고결의안을 낸다고 안건상정을 탕 탕 탕,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지, 다른 안이 있는지 물어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신상발언이라는 것이…… 우리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상정하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쪽에서 다른 안을 내시면 됩니다.

○趙在煥 委員 내놓으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발언권을 얻는데 신상발언하라는 얘기는 이미 다 그것은 결정되고, 신상발언하라는 것은 그런 얘기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아니 신상발언을 드리겠다는 것이고, 드리겠다고 방침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의사진행발언이 나와 가지고 옥신각신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진행에는 아무런 착오가 없어요.

○趙在煥 委員 아니 金龍學 위원이 그런 안건을 내놓으면서 상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안건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봐야지

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안을 내놓고 양쪽에서 내놓은 안을 가지고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學元 지금 무엇을 오해하시는데 제가 방망이를 두드린 것은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 안건상정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묻고 동의가 되어서 안건이 성립했다는 3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신상발언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된 것이고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진행하려는 것이고 또 다른 안건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은 상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제가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안건 상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옥신각신한 겁니다. 오해 말기를 바랍니다.

○金敬天 委員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사회를 보시느라고 애를 쓰십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간사로 있습니다. 간사를 교체해 줄 것을 저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마디의 답변도 없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 위원을 간사로 두면서 양당 간사 합의다, 양당 간사 합의다 하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간사부터 교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오늘 갑자기 소집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늦게 온 것에 대해서는 뭐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특위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지원하자는 특위지, 무슨 조사특위 무슨 인민재판하듯이 그러한 특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을 확실한 근거도 없이 추정으로 막연한 사실 가지고, 막연한 사실을 지적하니까 막연한 사실이 막연하다는 그러한 간사의 무책임한 발언만 남기고 사퇴권고결의안을 상정하는 데까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상정해 놓고 방망이 두드리고, 나가고, 이런 회의절차와 이런 분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다 퇴장했기 때문에 이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의를……

○咸承熙 委員 속기록을 위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咸承熙 委員 예,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국익 차원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또 이후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참 무슨 당이라는 문제를 다 떠나서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임해서 시종일관 그런 자세로 임해 왔는데, 그러면서도 한편 문제를 제기한 金龍學 위원의 진실규명에 있어서의 소극적 태도를 보고 참 대단히 불만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나라 국회 의정풍토가 이 지경이 됐는가 하는 의아심도 갖고 하면서 꾹 참고 지켜봤는데, 그 문제를 제기한 장본인이 오늘도 역시 이걸, 분명히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자꾸 당론 당론 하길래 무슨 당론이 있을 수 있는가 말이지요, 국익이라는 대전제하에서 각자 위원들대로 철학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金龍學 위원이 소속 당 위원들하고 별실에 가서 얘기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우리도 그러면 얘기합시다 그래서 왜 얘길 해야 되느냐 말이지, 다 지켜봤지 않는가, 혹시 새로 온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동안의 경위를 다 설명해 주겠다 이러고 난 아예 당 차원에서의 어떤 이 문제 논의 자체를 내 스스로 거절했어요. 그러고 들어왔는데 오늘도 지금 金龍學 위원 보면 문제를 제기한 장본인이 그냥 한마디 던져놓고 다른 위원들 몰고 다 나가버리는 이런 작태, 이건 우리나라 의회가 참 어떻게 아무리 자기 개인적인 목적이나 또는 어떤 집단의 이익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지경으로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후에 이 회의를 다시 진행하더라도 제발 당리당략적인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수록 우리 특위의 모습이 점점 더 순수성이 퇴색해진다 이 말입니다. 평창에서 세 표차로 진 것만 해도 억울하고, '아름다운 패배'라는 말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퇴색되어 가는데 또 이런 행동을 하면 더 퇴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건의합니다.

○全甲吉 委員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委員長 金學元 예.

○全甲吉 委員 金龍學 위원께서 아까 사퇴권고 결의안을 어디다 낸다고 그러던가요?

○委員長 金學元 우리 위원회에 낸 것 아닙니까?

○全甲吉 委員 위원회에 내서 金雲龍 위원이 알아서 양심껏 해라 이런 의미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예, 그런 얘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全甲吉 委員 그런 권고건의안이 어디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그건 뭐 위원의 의사로 법적 구속력이 저는 없는 거라고 보고……

○全甲吉 委員 단순히 이게 정치적인 의도로써 뭐 내년 총선까지 연계를 시키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의미 없는 그런 결의안을 내 가지고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하여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出席委員(15人)

金敬天	金映宣	金容鈞	金龍學
金雲龍	金學元	金孝錫	嚴虎聲
元喜龍	李源炯	李海鳳	全甲吉
趙在煥	崔燉雄	咸承熙	

○請暇委員(2人)

李完九 鄭範九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玄誠洙
전문위원	孫俊哲